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출애굽기 · 누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출애굽기 · 누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 ③ 2007년 단기선교와 선교 훈련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토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보혈로 세워진 교회! 보혈을 전하는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2007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보혈로 세워진 교회! 보혈을 전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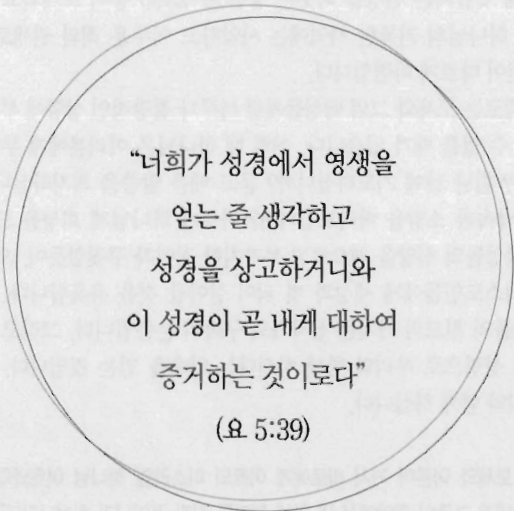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는
보혈의 역사와 은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충현의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충현 교회여, 강건하라!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진실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삼키려하는 음부의 권세 앞에
오직 십자가 정병되어 충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애 3:20).

2007년 1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워 바로왕 앞에 서기를 꺼려했던 심약한 모세에게 굳건한 믿음과 확실한 보장책을 마련해 주신 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본 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바로 앞에 서게 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로에게 분명히 전하는 장면입니다. 즉 본 장에는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1-9절)과 이 요구에 심히 분노한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전보다 더욱 혹독하게 다루는 장면(10-18절), 그리고 그 같은 거친 대우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빗발치는 원성을 퍼붓는 장면(19-23절)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는 사악하고 어두운 죄의 권세로부터의 집요한 도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처럼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환난 날에 기도하십니까? 듣고 배운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그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십니까? 바로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계으르고 무가치한 것이라 꾸짖었듯이, 오늘날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벗 되어 살아갈 것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출 5:1)

기도 제목 ① 소망 중에 늘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2007년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신년 감사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구한 1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직접 요구했던 모세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우선 실망한 모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 내리라”(1절). 그로 하여금 절벽같이 압당한 상황이나 세상의 권력자 앞에 너무도 무기력했던 모세 자신을 보지 말고 오히려 이 역사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이미 제시한 바 있던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 번 일깨우셨습니다(2-13, 28-30절). 한편 이와 더불어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언급됨으로써(14-27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권위를 인준해 주신 사실을 은연 중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이 심각한 절망 중에 놓였을 때 그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 권고하시며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합당한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시며 또 앞날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스스로는 날마다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자신을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그늘 밑에서 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출 6:2)

기도 제목 ①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젊은이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깨달은 천국일꾼으로, 그리고 헌신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로의 강력한 반발(5:1-14)과 동족 이스라엘의 극렬한 불만(5:15-21, 6:9)으로 위기에 몰렸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 의식을 다시 한 번 고취시키시어 그로 하여금 재차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1-7절). 이 때 모세는 첫 번째 요구 때보다 더욱 강력한 어조로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팡이 이적으로 애굽 종교(뱀으로 상징됨)에 대한 여호와와 하나님(지팡이로 상징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8-13절) 동시에, 애굽의 젖줄이요 애굽 종교의 근거지인 나일 강의 물을 죽음의 상징인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처절하고 고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14-25절).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불의함을 고수하는 자에게는 오직 처절한 죽음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의 마음이 강박해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신앙의 길을 가려 하는 성도들에게 사단은 각종 방법으로 그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당하여 갈등과 낙심과 회의 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기십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을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구원의 손을 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고집이나 이기심, 욕심 등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손을 놓고, 눈을 감고 우리 안에 깊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더라”
(출 7:13)

기도 제목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② 진실된 십자가의 증인이 일어나 곳곳에서 오로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애굽의 젖줄이자 애굽 종교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나일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처참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7:20-25)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은 좀더 강렬하고 전면적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 모세를 통하여 애굽 전역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1-15절)과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16-19절),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20-32절)을 연거푸 내리심으로써 모든 애굽인들의 삶을 혼돈 가운데 몰아 넣으십니다. 한편 재앙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개구리는 애굽인들에게 생산과 풍요의 신 헤카(Heka) 또는 헤키(Heq)를 상징하는 것으로써, 이것들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결국 애굽 종교가 지닌 기만성과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 준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는 상황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그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심으로써(20-24절) 자신의 백성을 향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좁은 율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계속 체험한 술객들은 드디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전능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의깊게 지켜보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같은 권능의 역사 앞에서 버티고 거역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좇아 십자가를 의지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출 8:1)

기도 제목 ① 십자가만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소서. ② 2007년 단기선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잔행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지금까지 무려 네 번에 걸친 강력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그 마음이 강박해져만 갔던 바로와 애굽 위에 하나님은 좀 더 파괴적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생축에 악질이 발생토록 하여 고통 중에 죽어가도록 하셨으며(1-7절), 악성 피부병인 독종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인들의 육체를 심히 괴롭히셨고(8-12절), 더욱이 그 파괴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박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인을 위시하여 애굽의 모든 소산물을 황폐화시키셨습니다(13-35절). 앞선 재앙들(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 7:14-8:32)이 애굽인들의 생활을 잠시 괴롭히는 정도였다면 이번에 내려진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의 재앙은 애굽인들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그들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고개를 쳐드는 자는 그 소유와 삶의 자리는 물론이려니와 그 생명까지 빼앗기는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분명 구별된 자입니까? 그렇다면 구별된 자로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구별 못할 정도로 그들과 섞여서 동일한 행동을 하며, 혼탁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여 다급할 때에는 허락하지만 안정을 얻고는 다시 강박해집니다. 성도 여러분은 변덕스런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오직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출 9:5)

기도 제목 ①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봉사위원회에 속한 자원봉사부원들의 모든 섬김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무려 일곱 차례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강타하는 동안 여전히 교만하고 계속해서 강박해져 가기만 했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지위를 위협하며(7절)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가공할만한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우박 재앙으로 피폐된 애굽의 산업을 완전히 멸절시키셨고(1-20절),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종교를 대표하는 태양 신 라(Ra)의 무기력함을 여실히 밝히시는 동시에 애굽인들의 마음 속에 어두움과 같은 끝없는 절망감을 안겨주셨습니다(21-29절).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애굽 전역에 절망의 어두움이 맹위를 떨치고 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던 땅에는 오히려 밝은 광명이 비취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에게는 공의의 칼을 통한 죽음과 절망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손길을 통한 생명과 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11절)”고 말하는 바로처럼, 오늘날 사단도 동일하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분 순종이 아닌 전체 순종을, 일부분의 삶이 아닌 전체적인 헌신의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출 10:11)

기도 제목 ①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의 피물은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정결한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아홉 가지 재앙의 총결산입니다. 오늘의 이 장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마침내 허락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 계기가 된 장자 사망 재앙을 알리는 최후 경고입니다. 즉 본 장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날을 준비토록 지시하신 장면(1-3절)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끝끝내 반대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던 바로와 애굽 위에 장자 사망의 재앙이 곧 닥칠 것을 계시하신 장면(4-8절) 및 그 재앙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신 장면(9,10절) 등이 소개됩니다. 실로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켜 자신에게 순복하기를 오래 참아 기다리시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그 죄악들을 간과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면 악인들에게 반드시 엄정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이면에 의인에 대한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입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재앙을 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의지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은총을 얼마나 기쁘게 누리고 있습니까? 모세의 의로운 분노는 바로에게 큰 경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강박합니다. 여러분은 혹 하나님으로 인한 의로운 분노보다는 인간적인 분노로 쉽게 격분하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는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세월을 아끼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 내리니"(출 11:1)

기도 제목 ① 땅의 것으로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주 달린 십자가만을 따르게 하소서. ②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온전히 기념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에 앞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록하게 참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야 했고(5,12절),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긴 유월절 양의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7,22절). 열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애굽의 전역은 큰 통곡소리로 가득 찼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의 규례대로 행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구원을 얻었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예외 없이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인류의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죽음과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 삶을 찾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히 9:22).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죽음을 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히 9:14,22).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감히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과 선행,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실 수 있습니다. 은총의 주님께 늘 감사하며 매순간 담대히 전진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 12:13)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장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빠른길은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블레셋 길이 아닌 먼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18절).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 (17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며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던 백성들이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과정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야 하는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은 필수적인 것이었듯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광야 길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며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좇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향오를 지어 나올 때에”(출 13:18)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전도위원회에 세우신 모든 일꾼들이 오직 은혜로 쓰임 받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심을 갖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출애굽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변한 바로가 특별병거 육백 승을 포함한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또한 수많은 마병과 군대를 거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검푸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과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적들 앞에서 했던 일이란 고작 모세를 원망하고 질타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11,12절). 백성들의 두려움과 원망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에서 나온 죄악입니다. 모세는 이런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14절)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것을 그쳐야 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그쳐야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성도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벧전 1:5)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4)

기도 제목 ① 삶의 매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② 헌신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위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광야 길을 걸어왔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하였지만, 그 물조차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2, 23절). 그들이 발견한 물은 아무 쓸모도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또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25절).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치료하는 여호와’(26절)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쓴 뿌리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히 12:15)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쓴 물을 단 물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치료하여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실로 그의 치료는 타락하여 부패한 자를 영과 마음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는 치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사가 되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

기도 제목 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어 주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이웃에게 온전하게 증거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신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며 그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1-3절).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변함없이 주어졌습니다(35절).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양식은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신 양식' (15절)이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존할 수 있으며 결코 자력으로서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신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또 만나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양식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명의 떡이 됩니다(요 6:48-51).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요 6:51)

기도 제목 ①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청지기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신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장막을 쳤지만 그 곳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1절).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의 쓴 물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갈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하며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2,3절). 물론 이는 모세를 향한 원망이라기보다는 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2절).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하심 자체에 대한 의심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이제껏 그들을 모든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확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패역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발함으로 그들의 불신앙과 패역함을 스스로 드러내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구멍이 타들어 갈 정도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오늘날 강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혹시 세상에 억눌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영원히 갈하지 않는 생수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7,38)

기도 제목 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더욱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였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1절). 이로 보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당시 주변 민족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대한 소문이 멀리 퍼져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 곧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롬 10:17). 그러니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문을 듣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구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은혜의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흘려주신 주님의 은총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치 이방신의 제사장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구원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와 자세히 사정을 들어 확인한 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 자세히 듣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해야 하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출 18:8)

기도 제목 ① 오늘 하루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각 교회 학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증거되어 어린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출애굽한 지 석 달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1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부터 제 이년 이월 이십 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까지 이 곳 시내 광야에 머물렀습니다(민 10:11,12). 하나님께서는 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6절). 이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사명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한 거룩한 십자가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그 제사장적 사명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며(롬 5:21),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화평케 하는 사역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골 1:20). 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출 19:6)

기도 제목 ①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 확신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단의 시험은 항상 유혹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우리를 약한 길로 유인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 죄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합니다(약 1:13-15). 그리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자로 구원받지 못할 죄의 종으로 붙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되게 하라”(3절)고 시험하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람이 떡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며 자산을 섬기라고 시험합니다(7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내라고 시험합니다(9절).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신 6:13).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12절).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으로부터의 승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앞서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과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시므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눅 4:8)

기도 제목 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므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선교위원회에 세움 받은 일꾼들이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하소서,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옹위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1절). 이제 막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시몬의 배 위에 오르신 후에도 무리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4절)고 명하십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베드로였지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5절) 라고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비록 억지 같은 말씀일지라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지난 밤의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심지어 자신만의 생각이나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함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생각과 길을 좇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눅 5:11)

기도 제목 ① 베드로의 모습이 주님을 좇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소서. ②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 그만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1-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6-11절).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논쟁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십계명에 규정된(출 20:11) 날로서 매우 중요한 성일입니다. 하지만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로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롭게 창조한 것을 예표하며(창 2:1-3),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아니라(신 5:15)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예표해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휴식을 위한 날로서(출 20:10)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을 예표합니다(히 4:3).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왜곡시키고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에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난은 율법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비난을 일축하시고(“다윗의 예,” 삼상 21:1-6), 안식일의 근본정신이 문자적인 것에 있지 않고 사랑에 기초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5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린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므로써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롬 13:10).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눅 6:5)

기도 제목 ①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대받지 아니한 불청객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뛰쳐 들어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바릅니다(38절). 이 모습을 지켜보며 바리새인은 마음에 큰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도 죄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흰히 아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부르시며 비유로 오백 데나리온 빚진 자와 오십 데나리온 빚진 자들에 대한 탕감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42절).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빚진 자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 지를 아는 사람이 그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 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요 3:16).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지, 또 얼마나 끔찍한 지를 날마다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그만큼 더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여자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 둘 중 과연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이겠습니까?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눅 7:42)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시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을 드러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천국복음을 듣고 많은 이적을 경험하였던 제자들이었지만, 밀려오는 광풍 앞에서는 여지없이 두려움으로 인해 떨며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황급히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24절).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다시 예전과 같이 바다를 잔잔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25절).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시기에 대자연마저 순종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마 16:16)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써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요 1:1).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많은 수치를 친히 당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빌 2:5-8).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또 예수님께만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광풍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눅 8:25)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의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임박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영향을 받은 몇몇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57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었습니다. 그는 어느 곳이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매우 훌륭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58절).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가족들에게 작별인사를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62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돌아서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세는 이미 준비되었을 지 모르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뒤돌아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참된 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향해 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눅 9:62)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자기를 부안하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② 126개 전도회 회원들에게 영혼 구원의 열심과 성령 충만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반된 태도를 지적하시며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취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전도 여행 도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접을 받아 그들의 집에 유하시게 됩니다(38절). 이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였고(40절),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일에 열중합니다(39절). 여기서 무심한 마리아에 대한 마르다의 불평이 터져 나오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마리아가 말씀에 열중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십니다(41, 42절).

마르다의 관심사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었고, 마리아의 관심사는 말씀을 청종하는 제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복음 전파를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를 수행하시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인간적인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외적인 형식이나 결과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복음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눅 10:39)

기도 제목 ①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 복음을 품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FMTC 현지 선교사 준비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 병어리 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도, 지켜보던 군중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일이라고 단정 지어 버립니다(14,15절). 바알세불은 유대인들이 사단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군중들은 혼란스러워 했고, 예수님의 기적이 바알세불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분열된 집안이 무너지는 예를 말씀하심으로써 군중들의 혼란을 해결하십니다(18절). 예수님께서서는 병어리 된 한 사람을 고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유감없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강한 사람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할지라도 더 강한 자에 의해 제압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21,22절).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사단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사단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군중 중에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27절). 여인은 참으로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고백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28절).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에서 자신의 자녀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매일 매일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오호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눅 11:28)

기도 제목 ①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복지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외식에 빠진 바리새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참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적대하며 핍박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핍박은 필연적입니다(1-12절). 중반부에는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유산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은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을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일시적이고 온전치 못한 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생과 영적인 축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서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13-34절). 그 후 주님은 천국 도래의 결정적 계기가 될 예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해 말씀하십니다(35-59절).

주님은 훗날 분명히 닥칠 종말에 대비하여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대비할 것을 교훈하십니다(35-48절). 마지막 날까지 복음으로 인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의 대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49-53절). 그러나 우리는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며 견뎌야 할 것입니다(54-59절). 실로 복음은 이 땅에서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난 후엔 영원한 세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눅 12:32)

기도 제목 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소망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주님의 안식일 치유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악의적으로 주님과 논쟁했습니다(10-17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신들의 해석과 전통을 가미하는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잘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안식일 법의 본질은 무시하고 형식만 취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여인을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이는 안식일을 범함이 아니라 사랑의 사역임을 강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도 천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여 주님과 논쟁하려 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두 비유는 천국의 도래가 당장에는 미약해 보이나 이후 온 땅에 확산될 것을 암시합니다(18-21절). 그리고 주님은 구원 얻을 자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22-30절). 구원 얻을 백성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직 참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훗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31-35절). 주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청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눅 13:32)

기도 제목 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예배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는 안식일의 고창병자 치유사건이 나옵니다(1-6절). 다음 중반부에서는 주께서 한 잔치에 참석하시어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에 대해 교훈하십니다(7-24절). 주님은 천국의 초청장을 보내시지만 많은 이들이 육신적 문제에 얽매어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더욱 못한 자들을 강권하여 천국잔치에 참여시키는 대신 처음 초대받았던 자들은 천국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세상에 빠져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주의 제자된 자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요청되는 각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는 천국은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과 그분의 진리를 거부하며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사단의 엄청난 압력과 갈등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 해선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7)

기도 제목 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천국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가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주를 떠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얻음에 대해 세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 얻는 사실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양의 비유(1-7절)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8-10절)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가출한 자녀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구원에 대하여 인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11-32절).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기에 앞서 당신의 사랑을 발휘하시어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시고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속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타락한 죄인을 위한 구속의 법을 세우신 주님의 사랑과 열심은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와 같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죄인 각자가 회개하고 구원 얻는 전 과정을 보여 줍니다. 우리 각자는 탕자 비유의 전반부가 보여주는 대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고통의 모습, 이런 고통 중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기까지의 모습, 그리고 집으로 귀환하기까지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 후 탕자 비유의 후반부가 보여주는 대로 이런 돌아온 죄인에게 환영과 잔치, 아들로서의 지위의 회복이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면대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눅 15:20)

기도 제목 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열꾼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의 전반부는 도래하는 천국 구원을 분명히 알고 이에 대비하여 현재의 삶을 선용할 것을 강조하는 악한 청지기 비유입니다(1-13절). 그리고 중반부는 세상에 빠져 현실과 타협하여 살면서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14-18절).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지상에서의 영원한 제국과 정치적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주를 믿는다하면서도 땅의 복을 좇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주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구원관에 대해 주님은 논박하십니다.

본 장의 후반부에서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세상에서 부요와 안락을 누린 자가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며 오히려 엄중한 영벌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십니다(19-31절). 주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오류를 경고하시는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금 신앙의 바른 자세를 정립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나 공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생과 영벌은 이 땅에서의 세속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눅 16:28)

기도 제목 ①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소서. ② 선교주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의 도구로 헌신을 다짐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주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새 사람이어야 합니다(1-10절). 신자는 예수 안에서 과거의 죄를 씻음 받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열 문둥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 참 구원을 얻을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열 문둥병자 모두가 육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 아홉 명의 유대 출신 문둥병자들은 주님을 떠나갔으나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의 은혜를 접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복음을 육체적 차원에서만 받아들여 그것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후반부는 천국의 도래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과 그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천국의 도래 시기에 대해 질문합니다(20절). 이에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도 모른 채 그 도래의 시기만 묻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천국의 비밀에 대해 먼저 설명하십니다(20,21절). 그리고 천국이 온전히 실현되는 때인 재림과 종말에 있을 일들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준비를 하고 계실 때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세속적·정치적 구원자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복음을 그저 육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 주의 복을 하늘의 것으로 믿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눅 17:29,30)

기도 제목 ① 주의 은혜를 알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봉사자들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먼저 끈기 있는 과부의 비유(1-8절)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9-14절)는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와 자세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행한 안수 사건을 통해 주님을 의뢰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피조물이요 죄인이기에 어린 아이처럼 부속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린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며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15-17절).

한편 주님은 영생을 사모하던 한 진지한 부자 청년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대다수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 천국을 소망한다 하면서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위해서라면 비단 재물뿐 아니라 학식, 명예, 권력 심지어 건강과 미모 등 모든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당장의 유익은 줄 수 있으나 천국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하여 땅의 것들을 포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 전체를 거기에다가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눅 18:25)

기도 제목 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밝히 보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 전반부는 키가 작고 부유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1-10절).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열 마나 비유를 통해 세상 종말 이전까지 세상에 남아 있을 제자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십니다(11-27절). 예수님은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 영원의 세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 있는 동일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음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전개됩니다(28-40절). 예수님은 백성의 환호 가운데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환호하는 백성이 곧 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를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저 빵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세속적 지도자로 착각하다가 나중에는 주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의 전 단계요, 또한 예표였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눅 19:26)

기도 제목 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한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② 수요1·2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교재

1월 구역교재 초점

보혈로 세워진 교회

보혈을 전하는 교회

보혈로 세워진 교회

보혈을 전하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혈의 은총은 우리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총을 진실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항상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혈로 세워진 교회가 보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좁은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합니다. 보혈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힘으로도 정복되지 않습니다. 보혈로 세워진 교회만이 보혈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105	고전 11:23~26	주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재림을 기억하라
0112	눅 18:9~14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죄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라
0119	계 2:8~11	정복할 수 없는 교회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0126	애 3:18~26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을 소망하라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제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 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주의 만찬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재림을 기억하라

| 찬 송 |

찬송가 282장 유월절 때가 이르매

찬송가 284장 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 고린도전서 11:23~26

²³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²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⁵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²⁶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예식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고전 11:25

고전 11:26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언젠가 다시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정말로 믿습니까?

※ 자신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지 나누어 보십시오(마태복음 25장 참조).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사역이었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재림을 소망하라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요 14:3 / 가서 너희를 위하여 □□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행 1:11 / 갈릴리 사람들아 _____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_____ 오시리라

사도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살전 4:16 / □□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로 좇아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라

주의 만찬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축하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고전 11:23,24 /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_____ 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_____ 하시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다시 헌신하고 다른 이를 용서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 주의 만찬을 통해서 깨닫는 감사와 사랑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그것이 주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습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벧전 1:18,19 /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 된 것은 ☐ 이나 ☐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 의 보배로운 ☐ 로 한 것이니라

인내하며 담대하라

주의 만찬을 통해 선포되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요 1:29 / 보라 _____를 지고 가는 _____이로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히 9:22 /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 흘림이 없은즉 ☐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메시지는 주의 만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롬 1:16

십자가로 路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마음 속에 간직하십시오. 죄인들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요일 1:7

히 9:12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기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만찬을 준비합니다.

| 간절한 기도 |

1. 십자가와 재림의 의미를 기억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소서.
2.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2과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 초 점 |

죄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라

| 찬 송 |

찬송가 316장 목마른 자들아

찬송가 314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 치네

| 본 문 | 누가복음 18:9~14

⑨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⑩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⑪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⑫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마음으로 路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신자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무척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천대받던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지만 감사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육신에 속한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갈 5:17 / □□의 소욕은 □□을 거스리고 □□의 소욕은 □□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처럼 육신적인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세리처럼 영적인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의 감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구원받음을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받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있지만 잘못된 감사였습니다.

눅 18:11,12 / 하나님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 □□, □□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화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하고 또 소득의 □□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행한 것에 대해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자신의 공적이나 선행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엡 2:8,9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적인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세리는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눅 18:13 / ... 하나님이며 □□히 여기옵소서 나는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생명 있음을 감사하라

참 감사의 사람은 생명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참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을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롬 1:14

롬 6:6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의 선하심에 감사한다면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에 대해 감사한다면 그 교제의 지경을 넓혀갈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 현재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보다 다른 이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을 배려했습니다. 세리는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세리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겼습니다.

눅 18:13 /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은총을 통한 새 삶을 감사하라

세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춘 그는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새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벧전 5:5,6 / ... 하나님은 한 자를 대적하시되 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때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항상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가장 큰 축복의 장소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눅 18:14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_____ 낮아지고 _____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진실하게 회개를 한 세리에게 은총이 임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참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세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까?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까? 모든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살핀 뒤 진실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일 1:9

롬 6:13 / 또한 너희 지체를 □□의 □□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 □□로 하나님께 드리라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는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 간절한 기도 |

1.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2.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복음의 은총을 깨달아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3과 정복할 수 없는 교회

| 초 점 |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 찬 송 |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85장 군기를 손에 높이 들고

| 본 문 | 요한계시록 2:8~11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㉒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㉓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은총이 사라진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닌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방법을 전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참 교회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세상의 힘이 교회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교회는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계 2:8 /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요 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서머나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극심한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충성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정복할 수 없는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과 그 능력을 기억함으로써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계 2:9 / 내가 네 과 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요 16:33

믿음으로 부요한 교회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요했습니다. 때때로 고난은 육체를 통해서 또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곧 영원한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고후 8:9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하게 되심은 그의 함을 인하여 너희로 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창조주의 낮아지심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공중의 새보다 더 가난하셨습니다.

눅 9:58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부를 받은 사람은 초대 교회와 같이 나누어 줌으로써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영원한 부는 물질적인 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히 11:26 /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고난 중에도 충성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도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은 닥쳐올 고난에 대해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계 2:10 / 네가 장차 받을 _____ 불씨여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_____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 15:18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그 때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는 참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 16:18

계 2:11 / 귀 있는 자는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은총을 진실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은 보혈이 흐르는 교회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 간절한 기도 |

1. 세상이 정복할 수 없는 종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2.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하소서.
3.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4과 오 신실하신 주

| 초 점 |

신실하신 주님을 소망하라

| 찬 송 |

찬송가 449장 이 세상의 친구들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

| 본 문 | 예레미야애가 3:18~26

⁽¹⁸⁾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²²⁾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²³⁾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²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²⁵⁾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느도다 ⁽²⁶⁾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실제로 그것을 믿는 사람도, 실천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애 1:1 / 슬프다 이 성이여 _____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_____가 이제는 과부 같고 _____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욥 1:21 /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이 나왔사온즉 또한 □□이 그리로 돌아 가올찌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을 받으실찌니이다 하고

다니엘처럼 누군가에 의해 사자굴에 떨어지거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같이 격렬한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우리의 현실이 고난으로 가득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해 더욱 소망이 넘칩니다. 예레미야는 굶주림, 무너지는 성벽, 포위되고 약탈당하는 도시와 불에 타버린 성전, 궁궐과 여러 건물들,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애 1:12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서도 가난한 예레미야의 영혼은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애 3:18-21 /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과 여호와께 대한 내 □□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 되오니 중심에 화상한즉 오히려 □□이 있사옵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도무지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디찬 얼음장과 같습니다. 십자가와 어린 양의 피에 대해 선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황폐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합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칠혹같이 어두운 곳, 두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햇빛과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완전히 우리를 둘러 덮습니다.

애 3:22,23 / 여호와와 와 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이 크도소이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무한한 인내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 죄와 슬픔으로 얼룩진 우리를 기꺼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외치며 가슴을 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눅 18:13,14 /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자신의 공로와 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럴 때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참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소망이 되신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애 3:24-26 / 여호와와 나의 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느
도다 사람이 여호와와 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소망을 두며 확신하는 자에게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신실하십니다.

시 62:1

시 62:5

예레미야애가 3:22,23에 근거하여 찬송가 447장이 작시되었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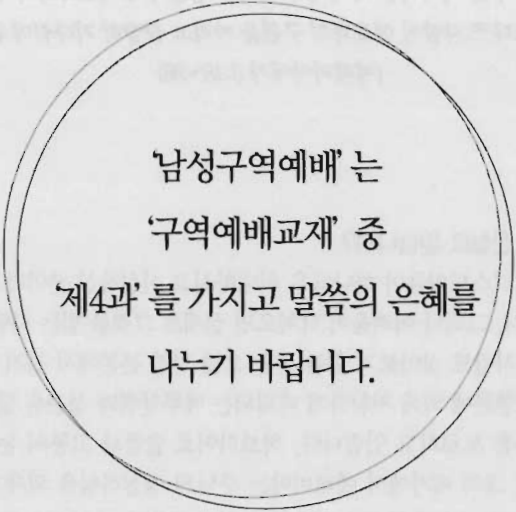
신 7:9 /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이시요 하
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
언약을 하시며 를 베푸시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신실함이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힘을 좇지 마십시오. 오직 신실하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소망합시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임을 깨닫게 하소서.
2.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신실하신 주님을 닮은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¹⁸⁾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
다... ⁽²²⁾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이니이다 ⁽²³⁾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²⁴⁾ 내 심
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²⁵⁾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풀
시는도다 ⁽²⁶⁾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애가 3:18~26)

주님을 진실로 믿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실제로 그것을 믿는 사람도, 또
실천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
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되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생각하며
깊은 고뇌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라
는 의미인 그의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되새기고 있
습니다. 고통 가운데 완전한 절망의 끝으로 내몰린 채 자신을 추스르지
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도 예레미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엄청난 시련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누군가에 의해 사자굴에 떨어지거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격렬한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상황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라면 말입니다. 주님은 매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믿기 너무 어렵지는 않습니까? 힘겨운 일들이 에워쌀 때 여러분은 슬피 울부짖는 자입니까 아니면 찬양하는 자입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 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18~21절).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동족마저도 그를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심하게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승리에 뒤따르게 될 끔찍한 일들을 증거했습니다. 굶주림, 무너지는 성벽, 포위되고 약탈당하는 도시와 불에 타버린 성전, 궁궐과 여러 건물들, 포로로 잡혀가는 남은 자들. 이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서도 가난한 그의 영혼은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고난 가운데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혹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모두 그 아버지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죽

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있었습니다(렘 52:10,11). 예루살렘은 능욕을 당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애 1:1)!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불찌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애 1:12).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징벌당하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도무지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디찬 얼음장과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무대 위의 배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과는 십자가도, 어린 양의 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황폐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이 곳에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빛과 회복의 메시지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22,23절).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무한한 인내와 소망을 가져다줍니다. 비록 우리가 칠혹같이 어두운 곳, 두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햇빛과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완전히 우리를 덮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살게 합니다. 주님은 죄와 슬픔으로 얼룩진 여러분을 기꺼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외치며 가슴을 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눅

18:13,14). 부디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24~26절).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그 소망을 두며 확신하는 자에게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없네. 그 사랑 변참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찬송가의 가사는 예레미야애가 3:22,23을 기초로 지어졌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참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바로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7년 1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매일묵상 : 하종철(1-7일), 정충선(8-15일), 강명구(16-23일), 전성원(24-31일)

구역예배 교재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